

<언간독> 연구

-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

김 종 철**

— < 次 例 > —

- I. 머리말
- II. <언간독>과 기존 편지 교재와의 관계
- III. <언간독>의 교육 내용
- IV. <언간독>의 교재 구성 방식
- 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후반, 서울과 전주에서 『언간독』, 『정보언간독』, 『증보언간독』 등이 방각본으로 출판되었다. <언간독(諺簡牘)>으로 통칭¹⁾되는 이 출판물들은 사회사·문화사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들이지만 국어교육사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공교육에서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

* 이 논문은 2013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수행한 “2013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의 연구 성과물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ttp://dx.doi.org/10.17313/jkorle.2015..35.237>

1) 이하 이 방각본들을 통칭할 때에는 <언간독>이라 하고, 국제적 출판물을 인용할 때에는 구별하여 출처를 밝힌다.

혁(甲午改革) 이후 훈민정음이 법적으로 국문(國文)의 지위를 얻은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 이전에 훈민정음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졌으며, 그 교재는 무엇이었는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문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교재는 적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연구도 있어왔으나 훈민정음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편찬된 교재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는 국문 교재라 할 만한 것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현실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근대 이전의 국문 자료들을 주로 문학, 어학, 서지학 등의 관점에서만 보아온 탓도 있다. 근대 이전의 언간 및 <언간독>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역시 주로 서지학적 관점, 국어사적 관점, 문체론적 관점, 국어생활사적 관점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다.²⁾

국문으로 된, 또는 국문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교재의 역사는 물론 오래되었다. 훈민정음 반포 후에 간행된 칠서(七書) 언해본(諺解本)은 사실은 교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내훈(內訓)과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계통의 책, 농업 기술과 응급 의학 관련 서적 등도 국가 주도로 출판된 광의의 교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교재이지 읽고 쓰는 능력 자체를 위한 교재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19세기 후반기에 출판되었지만 <언간독>의 등장은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국문 쓰기 교재로서 출판된 것으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그렇다. <언간독>은 명사(名士)나 명필(名筆)의 편지들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소통 상황에 따라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국문 편지 범례들로 구성된 편지 쓰기 교재이다. 물론 이른바 ‘편지틀’로 불리는 한글 편지 교본(敎本)은 이 이전부터 존재

2) 근대 이전 국문 편지 및 <언간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참고문헌>의 논저로 대신한다.

했고, <언간독> 역시 이 교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본들은 필자본으로 존재했고, 대부분 사족(士族) 여성들의 전용이었음에 비해 <언간독>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민간 출판업자들에 의해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언간독>은 방각본으로서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된 국문 교재였던 것이다. 이것은 <언간독>이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출판된 것임을 말한다. 아울러 한문 편지의 교본들이 이보다 먼저 출판되어 온 상황에서 한글 편지 교본이 출판된 점도 문화사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

국문 쓰기 교재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의 출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글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히 편지라는 특정 장르의 쓰기 교재가 먼저 출판된 것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나 필요한 만큼은 유의하면서 작문 교재로서 <언간독>의 성격과 특징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주자료는 『정보언간독』(丙戌十一月 治洞新刊)(1886년)이다. 『정보언간독』은 방각본으로 간행된 <언간독>들 중에서 선본(善本)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봉좌, 2004: 55-57).⁴⁾ 이 자료와 함께 『언간독』(銅峴新刊, 간행년도 미상), 『후사류집(候謝類輯)』(武橋新刊 방각본), 『규합한훤(閩閩寒暄)』⁵⁾, 『통가왕복』⁶⁾, ‘순천김씨묘출토언간’(조항범, 1998), ‘현풍곽씨

3) 이두(吏讀)를 국문 표기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에 선다면 방각본으로 출판된 『유서필지(儒胥必知)』 역시 광의의 국문 작문 교재에 포함될 수 있다. 표기 문자, 학습자가 귀속되는 계층, 학습자의 성(性), 쓰기 목적 등에서 <언간독>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 또한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언간독> 전반 및 판본과 수록 편지 종류에 대한 연구는 김봉좌(2004), 김남경(2001), 홍은진(1997) 참조.

5)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이다. 『조선조여인의 삶과 생각』, 숙명여대 박물관,

언간’(백두현, 2003) 등을 참고하기로 한다.

II. <언간독>과 기존 편지 교재와의 관계

언어로 소통하는 행위는 인간 생활에 불가결한 것인데, 문자로 소통하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근대 이전의 이중적 문자 생활에서 한문의 습득은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었고, 국문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국문으로 소통하는 일은 사회·문화적 여건의 차원에서는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의 반포 이후 국문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는 늘어났고, 이러한 흐름⁷⁾ 속에서 19세기 후반기에 <언간독>이 거듭 편찬 출판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국문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상업적 출판이 가능해졌음을 뜻한다.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었듯이 『정보언간독』은 『언간독』을 증보(增補)한 것이다. 『언간독』(銅峴 신간)과 『정보언간독』(治洞 신간)을 비교해보면, 수록된 편지 범례로는 ‘고목’에 답하는 ‘답비디흐는법’이 추가되었고, 편집상으로는 『언간독』에서는 부록으로 있던 ‘고목’이 『정보언간독』에서는 ‘답비디흐는법’과 함께 본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정보언간독』보다 편지 범례가 더 많이 수록된 『증보언간독』

1996에 영인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6) 문안지(問安紙)를 중심으로 한 국문편지 모음집이다. ‘통가왕복’은 ‘通家往復’, 즉 혼인으로 맺어진 집안 사이의 편지 왕복을 뜻한다고 하겠다. 필사본으로 모두 64장이며, 경복 문경의 반가(班家)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소장.

7) 근대 이전 한글 편지 자료 전반에 대해서는 황문환(2010) 참조.

』(김무조 소장본, 1907)도 출판되기도 했는데(김남경, 2001: 37-40) 이것은 <언간독>에 대한 수요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편지 범례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언간독>의 첫 출판본이라 할 수 있는 『언간독』은 선행 연구에 의해 한문 편지 교재인 『후사류집(候謝類輯)』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고, ‘고목’과 ‘답비디흐는법’은 『유서필지(儒胥必知)』의 범례를 수용한 것임이 밝혀진 바 있다(김봉좌, 2004). 그런데 『언간독』은 이외에도 ‘문안지(問安紙)’의 범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한문 편지 교재나 ‘문안지’에는 없는 것들도 있어 편찬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재론이 필요하다.

1. 『언간독』과 한문 편지 교재와의 관계

편지는 일찍부터 사족(士族)들에게 긴요한 존재였으므로 사족을 위한 한문 편지 교재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중국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 『간식류편(簡式類編)』, 『한훤차록(寒暄筭錄)』, 『간독정요(簡牘精要)』, 『후사류집(候謝類輯)』, 『초간독(草簡牘)』 등등이 한문 식자층의 수요에 부응하여 민간에서 출판되었다.⁸⁾ 18세기에 편찬된 『간식류편(簡式類編)』과 19세기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훤차록(寒暄筭錄)』은 편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에 적당하게 쓰이는 어휘, 그리고 용도별 편지 범례를 중심으로 편찬한 것이고, 『간독정요(簡牘精要)』는 월령(月令)에 따라 표현 어구와 편지의 사례를 드는 방식으로 편찬된 것이다. 『후사류집(候謝類輯)』과 『초간독(草簡牘)』은 소통 상황에 따른 편지의 범례들을 제

8) 한문 편지 교재에 대한 연구는 김효경(2003a), 김효경(2003b), 김효경(2005), 김효경(2006) 참조.

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간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판되었으므로 한문 편지 교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간독』 상편(上篇)의 남성들의 편지 범례들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후사류집』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언간독』의 상편을 종류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안부 편지 : ① 아들, ② 아버지, ③ 조카, ④ 삼촌, ⑤ 아우, ⑥ 형, ⑦ 외삼촌, ⑧ 장인, ⑨ 사돈, ⑩ 존장 (이상은 수신자별로 나눈 것임)
- (2) 사교 편지 : ① 답교, ② 화류, ③ 관등, ④ 복날, ⑤ 가을놀이, ⑥ 묵은혜 세찬, ⑦ 새해 인사, ⑧ 생남 축하, ⑨ 과거 치하, ⑩ 외임 치하
- (3) 상업 거래 편지
- (4) 위문 편지 : ① 문병, ② 조장(弔狀), ③ 위장(慰狀)

『언간독』 상편의 편지 범례들은 (3) 상업 거래 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사류집』에 그 대응 사례들이 있다. 이 점에서 전자는 후자를 참고하여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후자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 후자에 수록되어 있는 범례들 중 상당 부분은 수용되지 않았다. 수용되지 않은 것들은 다음과 같다.

平交往復, 詩詞往復, 勸勉, 借與, 失候, 賀子婚, 賀女婚, 賀筵仕, 上丞相書, 上宰相書, 上大夫書, 燕行, 藩任, 見謫, 宥還, 謝歲饋謝, 送曆書, 謝送扇子, 與衙子書, 與裨將書, 與冊房書, 錄紙, 邦慶, 婚書紙, 國哀, 告訃 등

과거(科擧) 축하 편지의 경우도 『후사류집』에는 초시(初試), 소과(小科), 대과(大科) 합격 및 아들의 등과(登科)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언간독』은 그렇지 않다.

『후사류집』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들 중, 평교왕복(平交往復), 하자혼(賀子婚), 하녀혼(賀女婚), 하서사(賀筮仕) 등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통 행위라 할 수 있는데 빠졌다. 반면 수용되지 않은 것들 중 상당수가 관리(官吏)들을 상대로 한 소통 행위인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혼서지나 부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편지의 범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 중에서 관리나 관청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편지들을 생략한 것은 그것들이 일반 평민들에게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연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사왕복(詩詞往復)을 비롯하여 고위 관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관청에 청탁하는 편지들은 사족(士族)들에게는 자주 있을 수 있으나 일반 평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다. 『후사류집』에는 없는 상인들 사이의 편지 거래를 새로이 포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언간독』의 편찬자는 일반 평민 남성들의 편지 생활을 중심으로 『후사류집』에서 취사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사류집』에서 선택한 것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안부, 사교, 그리고 위문편지가 선택된 것이다. 이는 상하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통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언간독』이 이 세 가지 소통 행위에다 직업 활동과 관련된 소통 행위, 즉 상인들 사이의 거래를 위한 편지를 추가한 것은 편지의 역할을 안부, 사교, 위문, 업무 등의 네 범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족(士族) 남성들의 문화에 기반을 둔 세분화된 편지의 역할 대신에 평민 남성들의 일상생활에 기반을 둔 편지의 역할을 고려하

여 『후사류집』에서 취사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사류집』에서 선택했다고 해서 그 편지들이 『후사류집』에만 수록된 범례들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안부에 해당하는 것들은 『간식류편』, 『초간독』, 『간독정요』 등에서 두루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식류편』의 경우 가정류(家庭類)에 조손(祖孫) 사이, 부자(父子) 사이, 숙질(叔姪) 사이, 형제(兄弟) 사이의 왕복 편지들을 수록하고 있다. 즉 이런 부류의 편지 자체는 한문 편지 교본에 두루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안 외에 위문이나 사교 편지들도 대부분의 다른 한문 편지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점에서 『언간독』의 상편에 수록된 남성들의 편지 종류는 대부분 한문 편지 교재에 두루 수록된 것들이 그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후사류집』이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언간독』과 필사본 ‘편지들’과의 관계

『언간독』 하편은 여성이 발신자인 편지들의 범례를 모은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족(士族) 또는 식자층(識者層) 남성들을 위한 한문 편지 교재들이 『언간독』 상편의 남성들 사이의 편지 범례에 참고가 되었다면 하편의 여성을 위한 편지의 범례들은 상당 부분 사족(士族) 여성들을 위한 필사본 형태의 국문 ‘편지들’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사족(士族) 여성들의 문안지(問安紙)의 범례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또 18세기 이전의 범례집을 보기 어렵다. 다만 문안지 중심으로 편집된 필사본 편지들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19세기 말엽이나 근대 초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합한훤(閨閣寒暄)』을 들 수 있다. 이 편지들은 범절을 철저히 따졌던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들을 위한 교재여서 예속(禮俗)에 입각한 그 규식에 대한 요구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김은성, 2004). 『규합한훤』의 문안지 및 사돈지들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여혼(女婚) 지내고 신랑 돌아갈 때 안사돈에게 하는 편지와 그 답장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보내는 답장
- ② 사위 재행 데리러 갈 때 안사돈과 사위에게 각각 보내는 편지
아들 재행 보낼 때 안사돈에게 보내는 답장
- ③ 세말(歲末)에 장모가 안사돈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 답장
- ④ 신년에 장모가 안사돈에게 보내는 편지
- ⑤ 딸 우례(于禮) 때 안사돈에게 보내는 편지
며느리 우례 후 안사돈에게 보내는 답장
- ⑥ 우례 후 신부가 친정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 답장
친정 부모에게 각각 보내는 신부의 답장
- ⑦ 신부가 친정 오라버니에게 하는 편지
- ⑧ 친정 올케가 신부인 시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 답장
- ⑨ 근친하여 친정에 온 뒤 시부모에게 각각 보내는 편지와 그 답장
- ⑩ 시어머니 없이 시누이 우례 보낼 때 사장에게 하는 편지와 그 답장
- ⑪ 딸 우례 때 시어머니 없을 경우 딸의 만동서에게 하는 편지와 그 답장
- ⑫ 딸의 시조부모 회갑 때 사돈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 답장
- ⑬ 사돈 회갑 치하 편지와 그 답장
- ⑭ 사돈이 구고(舅姑) 상사 당했을 때 조장(弔狀)과 그 답장
- ⑮ 사돈이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 조장과 그 답장
- ⑯ 사돈의 구고 소·대상 때 위장(慰狀)과 그 답장
- ⑰ 장례 부조, 잔치 부조, 세시 선물 및 일상 선물에 대한 감사 편지들

요컨대 『규합환원』은 여성이 딸을 결혼시킨 뒤부터 사돈, 사위 등 사돈가에 혼인 풍속과 예절에 따라 보내야 하는 편지들과 시어머니가 된 여성이 사돈과 며느리 등에 역시 혼인 풍속과 예절에 따라 보내야 하는 편지들, 그리고 신부(新婦)가 신행(新行) 전 구고(舅姑)와 신행 후 친정 부모 등에게 보내야 하는 편지, 사돈 간의 축하와 조·위장 등등의 범례들을 모은 것이다.

이러한 번다한 범례들은 『통가왕복』에서도 볼 수 있다. 신부가 시부모, 시백모, 동서, 시외숙모, 시조부, 시숙부, 시당숙부, 시고모 등등에게 보내는 문안지를 비롯하여 사돈 사이의 편지(초례 후 신부 측 편지와 그것에 대한 답장, 신행 때 신부 측 편지와 답장 등등), 사위가 장모에게 하는 편지와 답장, 바깥사돈 사이의 편지, 신행 전의 문안 편지, 딸이 신행한 후 답장 등등 혼인과 우례(于禮), 근행(覲行) 등의 전통적인 혼례 절차에 따른 세세한 문안지와 사돈지의 범례들이 두루 수록되어 있다. 물론 위장(慰狀)과 조장(弔狀)의 범례들도 두루 수록되어 있다. 혼인 이후에 많은 편지가 신부와 시가 사이, 장모와 사위 사이, 사돈 사이, 신부와 친가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신부가 혼인 후 시가에 3일 만에 가기도 하고, 달을 넘겨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넘겨 가기도 하며, 또 시가에 온 신부가 친정에 근행을 다녀와야 비로소 결혼의 전체 절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던 전통 혼례 과정에서 문안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예법(禮法)의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언간독』 하편의 편지 범례들을 종류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문안 편지 : ① 시부모에게 보내는 신부 문안지, ② 시숙부에게 보내는 신부 문안지, ③ 시숙모에게 보내는 신부 문안지,

④ 시아주머니에게 보내는 신부 문안지, ⑤ 친정을케
가 시누이인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⑥ 친정에 온 후
동서에게 보내는 편지, ⑦ 우례 후 새사돈에게 보내는
편지, ⑧ 사위에게 보내는 편지, ⑨ 시가 어른들 생신
축하 편지(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삼촌, 시숙모), ⑩ 며
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집안제사 불참을 아뢰는 편지

(2) 사교 편지 : 남남끼리 하는 편지

(3) 위문 편지 : 조장(弔狀)(동서 사이의 조장, 딸과 사위에게 각각 보내는 것), 위장(慰狀)(손위, 손아래 사람에게 보내는 것)

앞에서 살펴본 『규합한훤』과 『통가왕복』의 편지 범례들에 비하면 『언간독』의 그것들은 상당히 소략하다. 혼인 직후 신부의 문안지는 상당히 갖추고 있으나 신랑의 재행, 신부의 우례와 근행 등등과 관련된 사돈 사이의 편지는 많이 생략되었고, 역시 혼인의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사돈 사이의 경조사에 대한 편지 왕복 등도 많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문안지들도 언제 보내는 것들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①~④는 우례(于禮) 전에 신부가 보내는 것으로 보이나, ⑤와 ⑧의 편지는 언제 보내는 편지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로 볼 때 반가(班家)의 예법에 철저한 『규합한훤』과 『통가왕복』에 비하면 『언간독』의 하편은 예법이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⑩의 사례처럼 며느리가 제사에 불참한다며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소통 행위는 예법에 맞으나 그러한 소통 내용을 범례로 제시하는 것은 제사에 불참해도 편지로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반가의 엄격한 예법을 가르치는 교재라 하기 어렵다.

한편 『언간독』 하편은 편지들의 범주를 문안, 사교, 위문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편에 비해 업무에 속하는 편지가 없

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상인들이 주고받는 편지와 같은 업무용 편지가 없는 것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3. 『언간독』 편찬에서의 새로운 모색

앞에서 보았듯이 『언간독』은 한문 편지 교재와 문안지 중심의 필사본 편지들에서 범례들을 취사선택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편지 교재와는 다른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교재들에는 없는 새로운 용도의 편지 범례들을 포함시켰다. 곧 상인들 사이의 상거래를 위한 편지들과 남남 사이의 여성들의 편지 왕복이 그것들이다. 상거래 편지가 포함된 것은 편지 왕복을 경제 활동의 일부로 설정하였음을 뜻한다. 물론 양반들도 실제 편지에서 금전 문제 등을 비롯한 가정 경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 한문 편지 교재에서도 수신자에게 무엇을 빌리는 것을 주제로 한 편지 범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이 상행위와 관련한 편지 왕복을 하는 것은 직업상 요청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남남 사이의 여성들의 편지 왕복은 상인들 사이의 상거래 편지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즉 남남 사이의 편지 왕복은 『규합한훤』과 『통가왕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남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 범례의 내용이, 뒤에 다시 검토하겠지만, 사족(士族)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여성들 사이의 사교 편지는 사실상 예교(禮敎)의 테두리를 벗어난, 실생활의 감정에 충실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간독』이 새롭게 선보인 상거래 편지와 남남 사이의 여

성들의 편지 왕복은 『언간독』이 사족 중심의 편지문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편지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성들 사이의 편지 왕복에서 국문을 사용하는 범례를 보여준 것이 또 하나의 새로움이다. 근대 이전 식자층 남성들 사이의 편지 왕복에서는 한문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언간독』 상편의 남성들 사이의 편지 왕복은 그 대부분의 범례들을 한문 편지 교재에서 선택하면서도 표기 문자는 국문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편지의 수신자이거나 발신자일 경우 국문을 사용하던 문화적 관습을 식자층 남성과 남성 사이의 편지 왕복에도 적용한 것으로 편지 왕복의 문자를 성별과 계층을 막론하고 국문으로 통일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언간독』 상편에서 과거 합격과 외임(外任)을 축하하는 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편지들이 일반 평민들의 생활에도 필요한 것들이어서 편지들의 범례를 한문 편지 교재에서 가져오면서 편지의 문자는 국문으로 전환한 것은 평민들의 문자 생활을 기준으로 삼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언간독>의 교육 내용

<언간독>이 오늘날 학교 교과서와 같이 편찬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나 국문 편지 쓰기 교재로서는 그 나름의 잠재적인 학습 목표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국문 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언간독>의 교육 내용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언간독> 학습자의 복합성

앞에서 『언간독』이 선행하는 한문 편지 교재와 한글 편지 교재에서 범례들을 선정하고, 또 새로운 범례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교재임을 보았다. 그렇다면 『언간독』은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교재의 안과 밖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교재 밖에서는 우선 이 책이 민간 출판사에 의해 방각본으로 출판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책을 누구나 살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학습자를 특정한 계층이나 성별(性別) 또는 직업으로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국문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학습자들은 주로 계층별로는 평민층, 성별로는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문 편지 교재로서 방각본으로 출판된 『한훤차록(寒暄筓錄)』, 『간독정요(簡牘精要)』, 『후사류집(候謝類輯)』, 『초간독(草簡牘)』 등이 주로 사족(士族)과 중인(中人) 남성 등 한문 식자층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한다면 『언간독』은 한글로 된 편지 쓰기 교재라는 점에서 계층별로는 평민층이 주 학습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문 사용의 일반적인 양상만으로 『언간독』의 학습자를 여성 일반이나 평민층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우선 사족과 중인 남성들도 여성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국문을 사용하였으므로 학습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언간독』 상편(上篇)은 남성과 남성 사이의 소통을 다루고 있고, 남성이 여성과 주고받는 편지 범례는 수록하지 않고 있다. 『언간독』 하편(下篇)에도 여성의 편지에 답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남성이 발신자로서 여성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족(士族)

여성들은 이 『언간독』의 학습자라 할 수 있는가? 『언간독』의 하편이 여성 학습자를 위한 것인데, 신부 문안 편지의 경우를 보면 사대부가의 여성들을 학습자로 설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격식(格式)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더구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인 여성들끼리 하는 편지의 예문에 내훈(內訓)을 재미없는 책으로 치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사족 여성들을 주 학습자로 보기는 어렵다.

교재 안에서 학습자를 찾다보면, 『언간독』의 상편은 남성들끼리의 소통을 다루고 있고, 하편은 여성이 발신자인 편지들을 편집해 놓고 있다. 사족 남성들의 경우 편지 왕복은 보통 한문으로 하였으므로 『언간독』의 상편(上篇)이 남성들 사이의 국문 편지 왕복(往復)을 다룬 것은 사족 남성이 아닌 평민 남성을 주 학습자로 삼았음을 말해준다. 특히 상고(商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왕복 편지(<상고간 왕복 편지>, <물건 아니 밋는 편지>)를 상편(上篇)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평민층 중에서 상인층을 이 교재의 주요층으로 끌어들여줬음을 보여준다. 양반과 중인 남성들을 위한 한문 편지 교재들 내용에 상인들의 편지 왕복이 범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언간독』에 상인들의 왕복 편지가 범례로 들어간 것은 이 교재의 학습자 구성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19세기에 상인층이 상업의 발달과 함께 상거래에 편지를 활발히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⁹⁾

그런데 상편에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편지(<과거 치하 편지> 왕복)와 외직(外職)에 임명되어 나가는 것을 축하하는 편지(<외임훈 치하 편지> 왕복)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의 계층과 관련해서

9) 이는 『유서필지』에 권리 확인 용도로 쓰이는 문권(文券)의 범례들이 포함된 것과 비교된다. 이 문권들은 상인층에 특별히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루 사용된 것이다.

는 앞에서 본바, 상인들의 거래 편지를 수록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를 보는 것과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족(士族)이 추구하는 바라는 점에서 보면 이 두 종류의 편지가 수록된 것은 이 교재가 상정하고 있는 학습자 중에 사족(士族) 남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科擧)가 사족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나 외직에 임명되어 나가는 것은 중인이나 평민에게 일반적인 일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사족(士族) 남성이 학습자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벼슬을 하여 지방으로 가는 사람을 축하하는 사람이 사족이라면 국문 편지를 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사족 남성을 단정적으로 학습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그렇다면 발신자는 한문에 능숙하지 못한 평민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거에 합격하거나 외직에 나가는 양반이 국문 편지로 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범례로 보인 편지에서는 발신자가 상대에게 자신을 ‘데’ 즉 ‘제(弟)’라 하고 있어 이 경우도 타당하지 않다. 이상에서 이 두 편지 사례는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추정컨대 『언간독』에 과거 치하와 외임 축하의 편지가 포함된 것은 『언간독』 편찬에 참고가 된 한문 편지 교재 『후사류집(候謝類輯)』에 이 두 종류의 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언간 형태로 변안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언간독』의 편찬자가 평민층을 주 대상으로 한 국문 편지 교재를 만들면서 부주의하게 이 두 편지 범례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상하층을 두루 학습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족 계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편지 범례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국문을 사용할 수 있는 하층민도 학습자로 포함하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언간독』에 부록(附錄) 격으로 ‘고목(告目)’ 왕복(<고목하는 법>과 <답비디하는 법>) 사례를 포함한 것이 그것이다. 애초 『언간독』에는 ‘고목(告

目)만 부록으로 수록되었고 이에 대한 답장은 수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언간독』에는 답장이 추가되면서 부록이 아니라 본문 속으로 들어왔다. 하인이 상전에게 올리는 편지인 고목과 이에 대한 상전의 답을 수록한 것은 이 교재가 하층민까지 학습자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편지의 범례들은 주로 사족 계층의 편지 교재에서 가져오되 상하층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사족 계층과 하인에게 특징적으로 쓰이는 편지 범례들도 포함하는 편집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편지의 문자는 국문으로 통일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한 것이다.

이상에서 교재로서의 『언간독』이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는 다양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민층의 남성과 여성을 주 학습자로 설정하면서 사족 계층과 하인의 사람들도 학습자로 포함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이 교재가 민간 출판업자에 의해 상업적으로 출판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수요자를 여러 계층에 걸쳐서 확보하려는 출판 전략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오늘날 교재가 남녀와 계층 구별 없이 단일한 성격의 학습자를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어느 계층에 속하는 학습자이든 이 교재는 모든 학습자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국문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쓰기 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교재는 아주 초급 수준의 교재는 아닌 것이다. 방각본으로 출판된 국문 서적 중에 한글을 익힐 수 있는 학습 제재를 책의 첫머리에 수록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이 교재는 읽고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간독』을 교재로 하여 편지 쓰는 법을 익힌 시기는 여

성의 경우, 신부 문안 편지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추리할 수 있는바, 결혼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결혼 연령을 감안한다면 대략 15세 이전에 학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역시 결혼을 하게 되면 국문 편지를 예절의 차원에서 써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혼인 이전에 국문 편지 쓰는 법을 익혔다고 보아야 한다. 사족(士族)의 어린이들이 남녀 불문하고 국문을 배운 것은 17세기 초엽 곽주(郭澍: 1569~1617)의 편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근 아기 언문 쾌히 비화 내게 유무 수이 흐라 호소(1614년 1월 2일 편지)
(백두현, 2003: 229-232)

가온대 아기 언문 쾌히 비화다가 내게 비라 호소 셋재 아기도 이제
는 쾌히 성호여 이실 거시니 언문 외와식다가 비라 니르소
(백두현, 2003: 246-249)

아내에게 아이들 국문 배우게 하라는 것인데, 곽주는 장모에게도 조카들에게 언문을 가르쳐달라는 부탁(1612년 5월 15일 편지)(백두현, 2003: 58-59)을 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인용 편지에서는 아이들이 국문을 배우는 목적이 유무, 즉 편지를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이로써 국문을 익히면 먼저 편지 쓰는 것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이 이전에 형성되었으리라고 보며, 다음에 볼 이덕무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교재로서의 『언간독』은 이처럼 국문을 가정에서 익히고, 이어서 편지 쓰기를 배우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국문을 익힌 사람들을 그 학습자로 삼았다고 하겠다.

2. <언간독>의 학습 목표

『언간독』을 작문 교재로 볼 때 이 교재는 어떤 교육 목표를 지향했다고 할 것인가? 당시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재가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앞에서 보았듯이 학습자가 다양하여 그 학습 목표를 일률적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당시 사족(士族) 계층에서의 훈민정음 교육의 목적이 특히 국문 편지 쓰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점에서 『언간독』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교육 목표를 추정할 수는 있다.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 초·중·종성(初中終聲)과 치·설음(齒舌音)의 청탁(淸濁), 그리고 자체(字體)의 가감(加減)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부인이라도 마땅히 그 상생상변(相生相變)하는 묘리를 잘 알아야만 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남을 대하여 말하거나 편지하는 것이 촌스럽고 비루하며 거칠고 어지러워 모범이 될 수 없다.¹⁰⁾

이덕무는 사족 여성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의 기반이 훈민정음의 원리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보았고, 이 원리의 터득으로 획득된 언어 능력이 발휘되는 대표적 사례로 사령(辭令), 즉 대인(對人) 발화(發話)와 서척(書尺), 즉 편지 쓰기를 들었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언어 능력에서 이덕무가 말하기 일반과 함께 쓰기에서는 특히 편지 쓰기를 든 것은 여러 장르 중에서도 편지 쓰기 교재로 『언간독』이

10) “訓民正音 字母釱切 初中終聲 齒舌淸濁 字體加減 非偶然也. 雖婦人亦當明曉其相生相變之妙 不知此 辭令書尺 野陋疎舛 無以爲式.” 李德懋, <婦儀>, 『士小節』(권7), 『청장관전서』(권31)(영인본), 민문고, 1989.

제일 먼저 출판된 배경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대외 활동이 제한되었던 조선 시대의 여성의 대외적 소통은 편지가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간독』은 사족 계층도 대상으로 했겠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대체로 평민층을 대상으로 한 교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인(商人)을 위한 편지 쓰기 범례가 포함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덕무가 제시한 사족 계층의 교육 목표가 평민층의 그것으로 될 수 있는가?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문 편지가 궁중에서 남녀 사이의 연서(戀書)의 형태로 등장한 사례에서 볼 때 편지로서 소통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는 편지 쓰기 교육이 오로지 사족 계층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소통 본능과 현실적 요구를 감안할 때, 『언간독』은 편지를 통한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본적인 교육 목표로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자의 사용이 상층에서 하층으로 확대되어온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상층의 쓰기 교육 목표가 하층의 그것으로 전이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¹¹⁾ 『언간독』에 제재로 수록된 편지들의 격식이 상층의 범절(凡節)과 언어 예절을 준용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하층민의 경우, <고목>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격식을 갖추어 상층의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했으므로 격식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목표였을 수 있다.

11) 중국의 경우, 편지가 처음에는 관료의 공적 업무와 관련되어 발달되었는데, 동한(東漢) 시대에 유학(遊學), 유환(遊宦)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적인 소식을 주고받는 가서(家書)가 발달하였고, 북송(北宋) 시대에는 구어(口語) 표현이 가서(家書)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이 두 현상을 평민화, 대중화로 본 관점이 참고가 된다. 趙樹功(1999: 2-14) 참조.

따라서 『언간독』은 기본적인 문자 소통 능력과 아울러 격식을 갖춘 편지 작성 능력을 학습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의 격식은 편지의 용도와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맥락과 용도에 따른 편지 작성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3. <언간독>의 학습 내용

1) 용도와 맥락별 편지 쓰기 학습

<언간독>은 모두 편지의 사례들은 편지를 해야 하는 상황 및 목적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컨대, <아버가 나간 아들의게 흐는 편지>, <아들이 집 썰나간 아버께 흐는 편지>, <싱남훈 치하 편지>, <쇠아바니 싱신 편지> 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 며느리와 시누이, 새 사돈 사이 등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따른 유형과 소통 목적 유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소통 상황과 소통 목적 중심으로 편지의 범례들을 선정한 교재로는 한글 편지집으로는 『규합한훤』이, 한문 서간집으로는 『후사류집』과 『초간독』이 있다.

<언간독>의 편지 배열의 특징은 친인척(親姻戚) 사이의 편지를 먼저 제시하고, 타인과의 편지, 그리고 조·위장(弔慰狀) 순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상편은 친가, 외가, 처가와외의 편지 왕복이 9편이고, 하편은 시가(媿家) 사람들, 사돈, 사위와의 편지 왕복이 10편이다. 특히 하편은 조장과 위장에도 시가와 친가 가족들 사이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타인과의 편지 왕복은 상편은 12편이며, 하편은 1편이다.

소통 목적을 중심으로 볼 때 <언간독>은 친인척 사이의 문안 목적의 소통을 중시하였으며, 타인과의 사교를 위한 소통을 그 다음으

로 중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안 편지나 조위(弔慰)의 편지가 모두 예절과 관련된 점에서 예(禮)의 실천을 위한 소통과 순수한 사교를 위한 소통으로 구체적인 편지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인척 사이에 안부를 확인하고, 경조사에 축하와 위로를 하는 예(禮)의 실천 방식으로 편지 왕복이라는 문자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조선 후기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교를 위한 소통은 남성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사교 활동과 관련된 편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남끼리 하는 편지> 단 하나만이 제시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타인과의 소통이 매우 적게 제시된 것은 여성의 대외 활동이 억제되었던 환경의 반영이다. 다시 말해 하편의 편지 배열과 소통 목적을 중심으로 볼 때 여성의 편지 쓰기 학습은 결혼 이후의 친인척 사이의 소통, 즉 젊어서는 시가와 친가 사이의, 자식을 결혼시킨 다음에는 시가와 친가와 함께 사돈과 사위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 신장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남끼리 하는 편지>는 비록 그 범례가 1편이지만 친인척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통의 사례로서 여성들의 소통 공간의 확장과 그것에 부응하는 소통 능력의 신장을 꾀했다고 할 수 있다.

2) 편지의 격식 학습

특정한 용도와 맥락에 알맞은 편지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격식이다. 일종의 언어예절이라 할 수도 있는 이 격식은 제대로 갖추어야만 그 의미가 구현되는 언어적 실천 행위이다. <언간독>의 많은 편지가 문안(問安)과 조위(弔慰)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편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

가 예절을 실천하는 언어 행위임을 뜻한다.

<언간독>은 이 편지의 격식과 관련하여 먼저 ‘것봉 규식’이라 하여 편지 봉투의 격식을 보여주고, 다음에 편지 전체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봉투의 격식으로는 수신자와 발신자 정보 및 편지를 봉(封)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보여주고, 편지 전체의 형식으로는 수신자, 본문, 일자, 발신자 등으로 구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식은 형식 차원의 것이고, 각 부분의 실제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여러 격식이 편지 형태와 용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형태의 차원에서는 수신자를 존중하기 위해 줄을 바꾸어 쓰되 다른 줄보다 몇 자 올리거나 비우고 쓰는 대두(擡頭), 역시 수신자를 존중하기 위해 줄을 바꾸는 이행(移行), 수신자를 지칭하거나 수신자와 관련된 단어 앞에 한 글자를 띄우는 격자(隔字), 발신자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소자(小字) 표기 등을 들 수 있다. <언간독>은 이러한 형태 차원의 격식을 학습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용어 차원의 격식은 세주(細註)의 형식으로 직접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식이다.

아모샤 한스(시하 아닌 뒤 쓰는 말) 즉전
형후 일양호오시니잇가(시하는 형시후라 호느니라)

수신자의 부모가 다 작고했을 때에만 편지 봉투에 ‘한사’라고 쓰며, 수신자가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안부를 물을 때 ‘형후’라 하지 않고 ‘형시후’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격식은 <언간독>에서 비로소 마련된 것이 아니며 그 유래가 오랜 것이다. 이러한 국문편지의 격식이 언제 성립되었는

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문편지의 등장 이전에 이미 한문 편지의 격식이 확립되어 있었고, 또 조선 사회가 신분사회인데다 문화적으로 상하 질서를 중시하던 사회였으므로 국문편지가 쓰이기 시작하던 때부터 격식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발굴된 자료로서 이른 시기의 것에 해당하는, 16세기 사대부가의 가족 사이의 왕복 편지들인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 중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흥덕골 채성원 적
누의님 전 상사니

문

안ㅎ읍고요스이논엇더ㅎ신고온후의
논기별몰라ㅎ읍뇌이다예는다
도히겨시이다날도치워가고몸조
심ㅎ여간스ㅎ쇼셔약갑슨슬와
건마논보내신디몰라ㅎ읍뇌
형님도가겨신가보기리슈니두아
괴초여논갓가스로슬와지어보
내뇌이다
아바님알픽드러서유무를스니
하요 ㅎ여이만시월열닐웬날
오라비 여홀¹²⁾

(조항범, 1998: 804)¹³⁾

12) 조항범, 앞의 책, 주해본에는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격식을 보이기 위해 원문 사진에 의거 복원함. 원문 사진은 조건상 편(1981: 178), 『忠北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 참조

13) 주해본에는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격식을 보이기 위해 원문 사진에 의거 복원함. 원

김여흠(金汝屹)이 채무이(無蔡易)의 부인인 누나에게 보낸 편지이다. 존대를 위해 행을 바꾸고, 대두를 하는 격식이 확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순천 김씨 묘에서 출토된 한글편지들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별로 없어 16세기 한글 편지의 격식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위의 사례로 미루어 이 시기에 상당한 정도의 격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한글 편지 자료인 ‘현풍 괄씨 언간’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갖추어야 할 격식이 두루 실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 중에는 사위가 장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손자가 조모에게, 안사돈이 안사돈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서 이 시기에 통용된 격식의 양상을 볼 수 있다.

밤 스이

기후 엇더흐옵산고 스모 망극

흐와이다 (...중략...) 아마도

기후 평안흐옵삼 일야 비읍노이다

(백두현, 2003: 480)

아들이 모친에게 올린 편지의 처음과 끝 부분이다. 존대를 위해 행을 바꾸는 격식과 함께 일종의 공식화된 표현으로 편지의 처음과 끝의 격식을 차렸음은 형제들이 역시 같은 모친에게 올린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⁴⁾ 가족 사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의 격식이 17세기

문 사진은 조건상 편(1981: 178) 참조.

14) “밤 스이 기후 엇더 흐옵시니잇가. 스모 ㄱ 업스와 흐옵노이다 (...중략...) 심난흐와 이만 알외옵노이다.” (백두현, 2003, 483-484면) ; “밤 스이 기후 엇더흐옵시닝잇까. 기별 모르와 스모흐옵노이다. (...중략...) 아마도 브라운기 기후 밋일 평안흐옵삼 축슈흐옵노이다.” (백두현, 2003: 488-489)

전반기에는 확립되어 있었음을 앞에서 본 아들들의 편지보다 손자가 조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문

안ㄴ업시알외읍고떠나온후의
 기후엇더흐읍시닝까잠드온숫도넛줍디몬흐
 으와시직을일긱줍노이다석들흔터
 피으와잇스와도져그나잇던가시브지아녀아니 비으음
 만몬흐여하흐운흐여췌스오이다손즈는
 덕분의즈식들흐오며무스히왓습노이다아마
 도이리셔브르읍기논출한
 기후 평안흐읍삼과시절편흐여수이가 비
 으음을천만특수흐읍노이다ㄴ이업스오
 터망극흐와이만알외읍노이다
 임술삼월념칠일일 손즈곽술이

(백두현, 2003: 499-500)¹⁵⁾

역시 대두와 격자의 격식을 볼 수 있고, 본문의 서두와 결말에서도 격식화된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격식을 갖춘 문안편지가 궁중에서도 쓰이고 있었음은, 같은 시기인 17세기 전반기 자료로서 숙명공주(淑明公主)가 부왕(父王)인 효종(孝宗)에게 올린 문안지(問安紙)에서 볼 수 있다.

문

안 엇줍고 야간

15) 주해본에는 원문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격식을 보이기 위해 사진본에 의거하여 원문대로 복원함.

성후 안녕호오신 문
 안 으옵고져 브라오며 날이 푼오니 더욱 섭 〃 아므라타
 업스와 호옵노이다

(김일근, 1991: 189)

<언간독>에도 범례가 제시되어 있는 신부의 문안지도 일찍이 그 격식이 확립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데, 1776년 시삼촌이 신부의 문안편지에 답장을 한 것(김일근, 1991: 223)이 남아 있어 사족(士族)계층에서 신부(新婦)가 문안지를 쓰는 것이 예속(禮俗)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요컨대, 국문편지의 격식은 16세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화되어왔다¹⁷⁾고 할 수 있다. <언간독>이 보여주고 있는 격식은 이러한 전통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간독>은 『규합환희』와 『통가왕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혼인 이후 여러 절차에 따라 신부집과 신랑집 사이에 오고가는 번다한 편지들을 다 수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개별 편지의 격식은 중시하되, 혼인 예속(禮俗)에 따른 의례(儀禮) 차원의 격식은 따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편지의 내용 구성 학습

<언간독>이 편지 교재라는 점에서 보면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16)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 인물이 시어머니에게 올린 문안편지로 격식을 잘 갖춘 것이 있는데, 선행 이전의 것은 아니다. 이 문안편지는 김일근(1991: 223) 참조.

17) 한글편지의 서두와 결말 부분의 표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병용(2009), 『한글 간찰의 상투적 표현 고찰』, 『동양고전연구』 37, pp.279-306 참조.

것은 편지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구성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언간독>은 편지를 보내는 핵심 사연 부분을 매우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사계 봉장

이 동안 죠격흐니 향념 간절흐며 일기부조흐니 연혀여 [격자] 신상
무고흐고 아희들도 잘 잇는지 썩〃 잇치지 못흐다. 나는 일양 지너
며 (무슨 흘 말 이 아릭 스라) 인편도 좋〃 할분 아니라 슈〃 혀여 긴
말 못혀여 잘 잇는 소식이나 알과져 뒤가 이만 그친다

년 월 일사빅

(『정보언간독』, p.6)¹⁸⁾

() 속의 밑줄 친 부분이 편지를 내는 실제 목적인데, <언간독>은 이 부분이 편지 전체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지만 알려주고, 그 사연 자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사교 편지나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업무용 편지에는 그 사연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으나 위의 인용과 같이 사연 부분이 생략된 범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전략…) 싱덜은 존당 기후 만안호오시니 하정 깃부오며(기별흘 말 이 아릭 스라) (…하략…)”, “(…전략…)이곳즌 잘 잇소오며(뒤답흘 말 이 아릭 혀라)(…하략…)” 등이 그렇다. ‘무슨 할 말’, ‘기별할 말’, ‘대답할 말’ 등이 편지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인데, <언간독>은 그 정보는 학습자가 알아서 작성하되 편지 본문 내에서의 그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안부와 자신의 근황 다음에 편지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진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18) [격자] 표시와 괄호와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함.

교재로서는 매우 불친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문편지 교재인 『한
훤차록』이 한 편의 편지 전체의 구성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편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의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체 편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언간독>
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분석하여 그 순차적 구조
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편지의 본문은 수신자 호명, 수신자에
대한 문안, 발신자의 근황, 전달하고자 하는 사연, 그리고 마무리 등
으로 구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구성 방식을 기본으로 하
여 본문 서두에 날씨를 언급하거나, 답장을 할 경우 편지를 받은 소
감을 말하거나 하는 방식이 다른 범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다. 물론 실제 국문편지가 모두 이러한 구성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사연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매우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하며, 수신자와의 정보 공유 정도에 따라서 안부에 대한 정
보나 결말 요소 등이 생략되기도 한다(이광호, 1996: 98-102). 반면
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연은 생략하는 법이 없으므로 <언간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연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편지 본문
의 내용 구성의 원리를 분명히 인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신
자와 발신자 사이의 관계, 즉 편지 왕복의 정도, 또는 다른 방식의
상호 소통의 정도에 따라 안부 인사 부분은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편지 서두의 인사와 결말의 인사 사이에 전달
하고자 하는 사연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만 인지하면 실제 편지
본문 구성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IV. <언간독>의 교재 구성 방식

1. 체제와 구성

『언간독』은 목록(目錄), 상편(上篇), 하편(下篇) 및 부록¹⁹⁾으로 되어 있고, 『정보언간독』은 상편은 표시되어 있으나 하편 표시는 없고, 부록 격이었던 ‘고목’이 출판사 표시 앞으로 옮겨졌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편은 남성끼리의 편지 왕복을 예로 들고 있으며, 하편은 여성이 발신자이고 답신자 중에서는 남성도 포함된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상·하편에서는 각각 소통의 성격에 따라 편지들을 배열하고 있는데, 편지마다 그 답장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즉 소통의 역할을 하는 편지의 특성에 맞게 편지의 왕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편지 쓰기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 소통이며, 수신자의 소통 행위는 수신으로 끝나지 않고 답장이라는 발신 행위를 해야만 소통 행위가 끝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앞에서 분류하였듯이 상편은 안부, 사교, 업무, 위문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하편은 문안, 사교, 위문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의 안부 편지와 사교 편지는 그 범례의 수가 비슷하여 남성을 위한 국문편지 쓰기 교육은 친인척 사이의 소통과 사회 활동 속에서의 사교적 소통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사교 편지가 아주 적어 여성들의 소통은 여전히 친인척 사이에 국한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 ‘부록’이라는 명칭은 없고 출판사 표시 다음에 수록되어 있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재의 제시 방식과 성격

구체적인 학습 제재로서의 개별 편지의 제시 방식은 편지 봉투 격식과 편지의 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것봉 규식’이라는 제목 아래 ‘아모싸 아모싸 종즈상셔’, ‘몇좌딕 입납’ ‘근봉’ 등으로 편지 봉투 작성 요령을 수신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편지는 제목부터 일자와 발신자 정보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대두(擡頭), 이행(移行), 격자(隔字)의 사례까지 포함한 형식적 구성을 물론 내용 구성의 절차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례로 제시한 편지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보면 안부 및 위문의 경우 그 내용은 상당히 도식적이다. 문안 편지의 경우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 발신자의 근황을 말하고, 다시 수신자의 평안을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인편 총총흐와 이만 알외오며’, ‘알외올 말씀 무궁흐으나 디강 이만 알외오며’, ‘슈슈흐여 긴말 못흐여’ 등등의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이런 의례적인 표현으로만 본다면 문안 편지는 안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통이지만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사연의 소통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행위 자체를 실천하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안부와 위문이 아닌, 어떤 일과 관련된 소통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그 내용이 도식적일 수 없다. 자주 문안 편지를 내어야 하는 친부모가 아닌 백부나 동생 등등이 수신자인 경우 ‘무슨 흘 말 잇거든 여기 디여 쓰라’, ‘무슨 흘 말 이 아리 쓰라’, ‘기별흘 말 이 으리 쓰라’ 등의 지시를 범례로 든 편지 속에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소통 사연은 일정한 규범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남아 있

는 한글 편지들은 의례적인 문안보다는 구체적인 사연의 소통을 실현한 사례들이 더 많은 데서 <언간독>은 실제 내용의 범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편지의 외적 형식, 용어, 내용 구성의 형식 등의 범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구체적인 일과 관련된 메시지 구성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소통의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절의 실천이 아닌 소통 행위, 예컨대 상인의 거래를 위한 편지나 사교를 위한 편지에서는 그 내용의 제시가 매우 구체적이다.

제번흐옵고 일귀 부죠흔온더 [移行]

괴운 평안흐시니잇가 앙소만 〃이오며 데[小字]는 무고흐오니 만형이 오며 이번 물건은 시세가 팔결이오나 다른 스릅이여서 돈 〃 식이나 덜흐게 어더 보늬오니 그리 아옵고 조금 두엇다 파르시며 돈 슈삼관식이나 썩러질듯흐오니 시세를 살피오셔 경선이 밋매치 마옵쇼셔 말슴 무궁흐오나 이 스릅의게 즈셰이 드르시옵쇼셔 이만 그치옵느이다

(『정보언간독』, pp.20-21)²⁰⁾

‘제번하옵고’는 <언간독> 전체에서 이 상인의 편지에 처음 쓰이고 있다. 이번 편지 이전의 편지 왕복 등에 대한 정보는 언급치 않고 간단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한 다음 물건을 다른 상인에 비해 싸게 보내니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팔면 이익을 남길 것이라며 자신의 물건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물건과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자세한 정보를 들어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장

20) 읽기의 편의상 띄어쓰기를 하되, 원문의 형식을 보이기 위해 [] 속에 그 형식적 규칙을 표기했다. 이하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이다.

도 마찬가지로이다. 외적 격식도 이행(移行)이 한 번 뿐이며, 발신자를 지칭하는 ‘데’를 작게 표기하였을 뿐 친인척간의 문안 편지와 비교하여 매우 간략하다.

문안 편지와 비교하여 내용 구성과 편지의 외적 형식이 다른 것은 사교를 위한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화류청 편지>이다.

비상

신이화는 곳 〃 지 황금빗을 뿌리우고 버들실은 쳐 〃 의 유록장을 드리우고산간 경치가 스름을 날노 방탕하게 호오니 근문 초시에 [移行] 형후 평안호시고 정든 벗과 맞조흔 술노 얼마나 노르시니잇가 데[小字]도 이썸을 당호와 즈연 술잔을 쫓아리 취호오나 [隔字] 형과 갖치 취호지 못호와 썸 〃 이 지닉여습기 박흔 술과 쇠잔흔 안쥬로 우리 〃 청호오니 안져서 청호난 일을 [隔字] 허물 마르시고 즉시 오실가 바라옵노이다

즉일 데[小字] 아모빅

(『정보언간독』, p.13)

이 편지에서 대두와 격자는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나 안부 교환은 극히 축소되고, 감정의 표출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쥬효를 갖초고 호번 놀기를 썸호시니 엇지 아니 가 말근 흥치를 비호시게 호리잇가 즉시 가올거시니 마니만 차리시옵소서 불빅상”(『정보언간독』, p.14)으로 되어있어 감정의 표현을 위주로 된 범례를 보이고 있다.

문안 편지와 위문의 편지가 비록 표현은 상투적이나, 격식 속에 인정(人情)을 절제하면서 곡진히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사교 편지는 격식은 최소한으로 차리고 인정을 절제 없이 있는 그대로,

때로는 과장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표출 방식을 편지의 범례로 제시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남성의 경우 <답교날 청하는 편지>, <관등청 편지>, <화류청 편지>, <복날 청하는 편지>, <가을에 놀자고 청하는 편지> 등 절기(節氣)에 따른 풍속 및 유흥(遊興)과 관련된 사교 편지를 많이 제시한 것은 이것들이 원래 한문 편지 교재에 있던 것이라 해도, 조선 후기 서울의 유흥 문화와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교 편지를 다수 제시한 것과는 달리 사회적 의제(議題)와 관련된 편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언간독> 편찬자의 편지의 역할, 및 한글 문자 행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협소함을 드러낸다. 이는 한문으로 된 실제 편지들이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의제들을 많이 다룬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감정의 적극적 표출은 여성의 사교 편지에서조차 드러나는데, 이것의 문화적 함의는 남성의 그것과는 다르다.

상장

지척의 잇스와도 한번 연신 못흐옵고 장 일긱좁고만 지니어스으며 사랑의셔는 거귀 [移行]

스랑의 친자오셔 정의 뜻타오시기 혼 형데나 다름 업스오신고로 즈연 [移行] 덕 성식을 익이 듯스와 지니어스으며 요스이 일귀 대단 부조흐온디 [移行] 귀운 평안호시오 [隔字] 아기너도 잘 잇습느니잇가 향념 간절이오며 이곳즌 아희들 호고 장 골몰이 지니어스으며 요스이는 적이 틈 업스오나 긴긴밤의 칙이나 보고져 호오디 느훈이리[‘느훈이라’의 오기 - 인용자] 흐옵는 칙은 오륜형실이 잇스오니 보아 더 신긱호 것 업스오며 진디방전이라 흐옵는 칙은 디방 슈죄호은 말이 너며 호변만 흐옵고 보자 호을 것 업습 언잔독[‘언간독’의 오기 - 인용자]이라 흐옵는 칙은 고금에 듯고 보지 못호 칙이나 디강 편지를[‘편지틀’의 오기 - 인용자]

이오며 신괴홍은 칙 어디 볼 슈 업스오나 [移行]
 덕의 무슨 칙 잇습거든 빌니시읍쇼셔 밋줍늬이다 일후 연호와 연신도
 흥읍고 혹 무엇 빌니라 호오시면 잇는 것슨 그리 호오리이다 총 〃 다
 못 그치읍늬이다 [隔字] 즉일 [隔字] 아모성
 (『언간독』(銅峴 新刊), pp.50-51)

남편끼리 교제가 있는 이웃집 부인에게 교제를 청하면서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빌려 달라 하고, 자기도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줄 터이며, 앞으로 소식 전하고 지내자는 내용이다. 이 편지 속에 『언간독』 선전을 교묘히 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지만(『정보언간독』에서는 이 편지의 이 부분이 삭제된다) 밀줄 친 부분이 특히 흥미롭다. <내훈(內訓)>은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와 다르지 않아 새롭지 않으며, <진대방전>은 윤리를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는 고로 재미없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들은 여가 시간의 소일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는 예교(禮敎)에 의한 속박을 벗어나려는 여성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사교 편지의 예문으로 신고 있는 것은 19세기 여성들의 심리를 의식한 편찬자의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이 책이 예교의 실천에 해당하는 문안 편지들만 배열할 경우 여성들의 호응을 잘 얻지 못하고, 또한 교재로서의 흥미도도 떨어진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언간독>에 수록된 제재로서의 편지들의 내용은 범례들이긴 하나 문화적으로 보면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예교(禮敎) 지향의 범례들과 실무 지향의 범례, 그리고 탈예교적(脫禮敎的)인 사교 지향의 범례들로 구성된 것이다.²¹⁾

21) 제사에 불참하는 사연을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며느리의 편지도 견지에 따라서는

3. 교수학습의 방법 : 자율 학습 교재

<언간독>은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재로 편찬되었다. 편지 쓰기에서 그 외형적 격식이나 형식적 구성 및 어휘 등은 모델로 제시된 편지들을 모방하거나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언간독>을 속칭 ‘편지틀’이라 한 것은 ‘자수틀’과 같은 조어로서 ‘틀’을 따라, 즉 본떠서 하면 된다는 뜻이다. 본을 받되 상황에 따라 응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교재의 관점에서 볼 때 <언간독>은 몇 가지 방식으로 학습자의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편지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편지의 형식을 본받도록 하고 있다. 봉투 규칙, 존대를 위한 편지의 형식 등을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둘째, 상당수의 범례들은 그러한 용도에 따라 그대로 따라하면 되게 하였다. 문안편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언간독>의 범례를 그대로 옮겨 쓰면 문안 편지가 되도록 했다. 이것은 문안편지가 그 편지 속에 발신자의 개인적 사연을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니나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안을 드린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방이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봉투 규칙과 같은 외적 형식으로 드러나는 장치 외에 세주(細註)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 장치를 두고 있다.

외고주 (장모란 말)

외칭 (사외란 말)

아모짜 한스(시하 아닌 뒤 쓰는 말) 즉전

아모짜 (전편으로 흐면 뒤호를 쓰라) 즉전

탈예교적이라 할 수 있다.

빅부쥬전 상셔 (빅부 쥬부 계부의게 각각 편지호는 뒤 보아 일칼르라)
 형후 일양호오시니잇가(시하는 형시후라 호느니라)
 친환이(제 병은 신병이라 호고 안히 병은 처병이라 호고 으희 병은 아
 환이라 호느니라)
 기후 호 가지 지닉옵시고 (혹 만안이라도 호고 혹 안녕이라도 호느니라)
 싱달은 쥬당 기후 만안호오시니 하정 깃부오며(기별홀 말 이 아티 스라)
 이곳즌 잘 잇스오며(티답홀 말 이 아티 흐라)
 아모 상인 익좌전(숫히 이러케 스느니라)

즉 단어의 설명, 수신자에 따른 용어의 선택, 편지 전달 방식에 따
 른 용어의 선택, 같은 뜻의 다른 선택적 표현, 구체적 사연의 배치
 위치 등등을 상당히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참고 사항의 제시로 보아 <언간독>은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주의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설명을 하여 도움을 주는 방
 식은 <언간독>의 편찬자가 창안한 것은 아니다. <언간독> 편찬에
 영향을 준 『후사류집』에 이러한 세주 설명 방식이 활용된 바 있고,
 『규합한훤』과 『통가왕복』에도 이러한 설명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 인용에서 밑줄 친 부분이 그 사례들이다.

答式 某地 子在某處上答書
 本宅 回納 (若於轉便付書則云某宅) 謹封
 父主前 上白是
 定省久闕伏慕深切卽於便來伏承
 下書謹伏審此時(隨時措語)
 氣體候一享萬安 (...하락...)

(『후사류집』, p.17)

상장 (너혼 지나고 신랑 도라갈 썩에 사돈의게 호는 편지)
 기드리올츠 [격자] 길형이 안녕 득달호오시니 반갑스온 등 대강 듯즈
 오니 [격자] 봉술호오셔(사돈의 구고가 아니 계시면 봉술이라 아니호
 고 거느리오셔라 홀지라)
 기운평안호오시고 [격자] 계절이 균화들 호오신
 듯 위형만 〃 이오며 이곳[소자]은 존후 대손치 아니시고
 (구괴 아니계시면 니르되 이곳은 대병 업습고)
 일길신랑호와 즈식의 (...하락...)

(『규합한원』, p.61)

새 사위가 장모에게 하는 편지(중인의기도 이와 갖치 호고 드만 시
 면익 외구주전이라 흙)/답봉장(중인도 이와갖치 호고 드만 연월일 및
 히 처부라 호고 부옹이라 흙)

(『통가왕복』, p.20)

이렇게 보면 <언간독>의 세주(細註)의 설명 방식은 한문편지 교
 재와 국문편지 교재에 두루 통용되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러한 설명 방식이 이미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간독>의 편지 범례들을 본떠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학습자의 주체적 활동을 유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를 바탕으로 응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본뜬다는 것이지 그대로 모
 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슨 흘 말 잇거든 여기 디여 쓰라’ ‘무슨
 흘 말 이 아릿 스라’, ‘기별흘 말 이 으릿 스라’ 등의 주문은 학습자
 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예문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소통의 구체적 사연 구성은 학습자의 몫으로
 남겨 놓은 교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언간독』은 모델 제시를 중심으로 하되 적용 방법과 응용

방법을 첨가한 자율 학습 교재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 작문교재로서의 <언간독>의 성격과 위상

19세기 후반기에 출판된 <언간독>은 그 이전에 출판된 한문 편지 교재들과 필사로 유통되던 국문 편지 교재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남성을 위한 편지 범례들은 한문 편지 교재를 참조하고, 여성을 위한 범례들은 국문 편지 교재를 참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언간독>은 남성과 여성을 함께 대상으로 한 교재로서는 처음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국문으로 편지 쓰기를 하도록 한 교재로서도 처음이다. 그리고 대중을 대상으로 출판된 국문 편지 교재로서도 처음이다. 특히 한문으로 소통하던 남성과 남성 사이의 소통을 국문으로 하는 범례를 제시하여 남녀 모두 국문으로 편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언간독>은 국문 편지 교재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자 생활의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작문 교육의 관점에서 <언간독>은 남성과 여성, 상층과 하층, 상인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상당한 정도의 격식을 갖춘 국문 편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목적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형성된 상황에 따른 편지의 범례들과 그 범례들과 관련된 내용 구성과 격식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 범례들 중에는 격식을 중시하는 것들이 있는 바, 문안 편지와 위문 편지 등이 그 사례들이다. 그런가 하면 상인들 사이의 편지 범례와 남남 사이의 여성들 사이의 사교 편지 범례들은 편지의 격식 보다는 소통하고자 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범례

들을 중심으로 보면 <언간독>은 특정한 소통 맥락에 부응하여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장르를 학습하게 하는 교재라 할 수 있다. 즉 편지를 주고받는 소통 행위가 함축하는 예교(禮敎) 실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범례들을 중심으로 보면 <언간독>은 발신자의 정보 전달 욕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장르보다는 개인의 의사 표출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학습하게 하는 교재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언간독>의 작문 교육의 지향은 복합적이다.

작문 교재 구성의 관점에서 <언간독>은 자율 학습을 지향한 교재라 할 수 있다. 범례를 제재로 제시하고, 학습자가 편지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제재를 제시하고, 세주(細註)의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설명을 가하는 방식에서 학습자의 자율 학습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재 제시 방식은 <언간독>의 독창이 아니며 한문 편지 교재와 국문 필사본 편지 교재에서 이미 거듭 구사했던 방식이다. 즉 효과가 검증된 방식을 채택한 셈이다. <언간독>이 출판되던 시기에 보통 교육으로서의 국문 쓰기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언간독>의 이와 같은 교재 구성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구축된 학습 방법을 적극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편지 교재의 역사에서 볼 때 <언간독>은 근대의 편지 교재의 선구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편지 교재에 대한 수요는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와 급격히 늘어났다. 근대 교통이 발달하고, 우편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 인편(人便)을 통해 제한적으로밖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소통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편지 교재의 출판은 전 시기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 한문 초서(草書) 편지 교재들도 거듭 출간되었고, 한문 현토식 편지 교재, 국

한문 혼용체 편지 교재 등이 족출하였다. 편지의 종류 또한 업무 활동과 사교 활동과 관련한 것들이 증가하였다. <언간독>은 이러한 근대에 출판된 서간문 교재들 중에서도 특히 이태준의 서간문의 근대화와 관련하여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태준은 구어체의 편지, 탈격식적 편지를 지향한 편지의 근대화를 도모했는데(이태준, 1947) 이미 <언간독>은 여성의 사교 편지와 상인들의 상거래 편지에서 구어체와 탈격식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태준의 지향을 어느 정도 선취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족출한 편지 교재들이 대부분 전시대의 한문 편지교재를 개편하는 양상이었다면 이태준 등의 근대화는 한문 편지의 격식과 형식을 부정하는 방향에서 추구되었고, 이 점에서 <언간독>의 일부 편지들이 탈 예교적인 지향과 구어체 지향을 강하게 보인 바는 주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簡式類篇(목판본 1책)(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簡牘精要(목판본 1책)

김일근(1991),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1996), 『규합한훤』(필사본), 『조선조여인의 삶과 생각』,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

* 이 논문은 2015. 5. 11. 투고되었으며, 2015. 5.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13.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6. 1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언간독(목판본 1책, 銅峴 新刊)

李德懋(1989), <婦儀>, 『土小節』(권7), 『청장관전서』(권31)(영인본), 민문고

李泰俊(1947), 『書簡文講話』, 博文出版社.

조건상 편(1981), 『北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징보언간독(목판본 1책, 丙戌 十一月 治洞 新刊)

草簡牘(목판본 1책, 乙巳仲夏完南新刊)

통가왕복(필사본 1책)

寒喧筭錄(목판본 3책)

候謝類輯(목판본 1책, 武橋新刊)(국회도서관 소장본)

2. 연구논저

김남경(2001), 『언간독과 증보언간독 비교연구』, 『민족문화논총』 24, pp.29-56.

김봉좌(2004), 『조선시대 방각본 언간독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성(2004), 『규합한훤을 통해 본 격식적 편지문화의 전통 -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어문연구』 32(1), pp.127-151.

김일근(1991), 『언간의 연구』(삼정판),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향금(1994), 『언간의 문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경(2003a), 『寒喧筭錄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간찰양식』, 『서지학』 27, pp.121-146.

김효경(2003b),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장서각』 9, pp.134-154.

김효경(2005), 『조선시대 간찰 서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효경(2006), 『조선후기에 간행된 간찰서식집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3, pp.277-301.

백낙천(2007),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인간의 특징』, 『한국언어문화』 34, pp.183-198.

백두현(201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 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

구』 10, pp.41-72.

신정숙(1967), 「한국 전통 사회의 내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7·38, pp.111-152.

이상호(2003),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호(1996), 「언문 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19(3), pp.95-131.

전병용(2009), 「한글 간찰의 상투적 표현 고찰」, 『동양고전연구』 37, pp.279-306.

조수공(1999), 『中國尺牘文學史』, 河北人民出版社.

허재영(2005), 「한글 간찰[언간]에 대한 기초연구 - 연구의 흐름과 간찰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사회언어학』 13(2), pp.257-277.

홍은진(1997), 「방각본 언간독(諺簡牘)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1, pp.84-97.

황문환(2010), 「조선시대 인간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pp.73-131.

■ 국문초록

<언간독> 연구

-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

김종철

<언간독>은 19세기 후반기에 민간에서 출판된 국문 편지 교재이다. 이 교재는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계층별로는 상하층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언간독>의 편찬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던 편지 양식과 격식이 두루 참조되었다. 남성을 위한 편지 범례는 한문편지 교재를 참조하였고, 여성을 위한 편지 범례는 신부(新婦)의 문안(問安) 편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문 편지 교재를 참조하였다. 이와 함께 <언간독>은 상인끼리 주고받는 편지, 남남의 여성끼리 주고받는 편지 등을 포함시켜 기존의 사족(士族)계층의 편지 생활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로 한문으로 편지 생활을 한 남성들도 국문 편지 학습자로 설정한 것은 선구적 업적이다.

작문교육의 관점에서 <언간독>은 상층과 하층, 남성과 여성, 상인 등 다양한 성격의 학습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격식을 갖춘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편지의 목적과 소통 상황에 따라 편지의 범례들을 제시하고 그 범례들에 요청되는 격식(格式)과 내용 구성 방식을 학습하게 하였다. 이 범례들 중에는 격식을 중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나 부분적으로는 격식 보다는 소통하고자 하는 정보에 중점을 둔 것들도 있다. 이 점에서 <언간독>의 작문 교육의 지향은 복합적이다. 작문 교재 구성의 관점에서 <언간독>은 자율 학습을 지향한 교재이다. 범례를 제재로 제시하고, 학습자가 편지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제재를 제시하고, 세주(細註)의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설명을 가하는 방식에서 학습자의 자율 학습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언간독(諺簡牘), 국문편지 쓰기 교재, 격식(格式), 소통 정보, 자율학습

■ Abstract

‘Eongandok’ as a Textbook on Letter writing in Korean

Kim, Jong-Cheol

Eongandok is a textbook on letter in Korean which was pu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first volume mainly contains letters exchanged between men, while the second volume contains letters sent by women.

The editor of Eongandok referred to textbooks on Chinese letters in presenting model examples of menpreletters, while referring to textbooks on Korean letters, including the letters of newly-wed, as model examples of women’s letters.

Furthermore, Eongandok differs from pre-existing textbooks on letters in that it includes letters exchanged between merchants, non-relative women, etc. In particular, it was a pioneering accomplishment that Eongandok targeted men accustomed to letters in Chinese characters as learners for letters in Korean.

Seen from the viewpoint of writing education, Eongandok was a book to develop learners’ ability to write letters with a high degree of formality. It presented model examples of letters according to their specific purpose and condition of communication, leading readers to learn about the formality and composition of the contents of model examples. Most of these examples emphasize formality, but some lay more emphasis on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s a textbook for writing, Eongandok is a book edited for self-teaching. It contains model examples for learners to emulate. In addition, complementary explanation supplies information necessary for learners.

[Key words] Eongandok(언간독), Textbook on Letter in Korean, formality,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self teaching